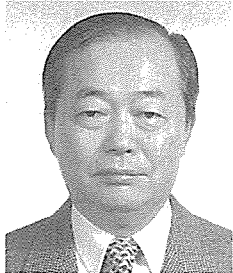


후각을 화학으로 식별

# 질 높은 잼으로 생활을 풍요롭게...

먹는 음식이나 마시는 술을 양으로 따지는 한국사람들은 다른나라 사람보다 후각이 둔한 편이다. 기원 초 로마시대엔 향료가 인간의 쾌락용으로 유럽 상류사회에서는 신분 과시용 악세사리로 애용되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노인체취를 제거하는 향수를 개발했다고 발표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도 무디어진 후각을 살려내어 우리에게 맞는 향을 개발해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노력이 아쉽다.



**張 幸 勳**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들어간 재료나 영양가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다른 것이 있다면 사용한 향료와 향료 배합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뿐 아니다. 후각이 미각보다 맛을 먼저 감지하고 후각의 도움이 없이는 미각이 맛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도 과학적 연구 결과로 밝혀진 사실인데도 그렇다.

### 양을 중시하는 한국사람들

한국사람은 후각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둔한 것 같다. 우리는 먹는 음식이나 마시는 술을 모두 양으로 따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천년간은 사람들이 맛보다는 양을 중시해왔다고 연초 뉴욕타임스는 보도한 일이 있다. 우선 배를 채울 만큼 먹기가 쉽지 않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마무리 지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포도주를 단숨에 들이마셨다. 외국 언

론들의 논평은 논외로 하고 내가 느낀 것은 포도주는 프랑스 포도주가 제일 이라고 말하는 김위원장도 마시는 것은 역시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이었다. 포도주는 우선 코로 향기를 음미하고 그 다음 입 속에서 다시 한번 향과 맛을 재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제격인 것이다. 그러기에 포도주 감식가들이 포도주 맛을 말할 때 맛이라는 말 대신 향(flavor)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술, 좋은 포도주를 코나 혀가 즐길 여유를 주지 않고 들이마신다. 돈과 맛을 함께 버리는 일거 양실(兩失)이다.

콧구멍에 자리잡고 있는 후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먹이의 위치를 알아내거나 몰래 근접하는 적을 탐지하는 보초병 역할을 했다. 종족보존을 위한 최전선의 초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진화하면서 후각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

시청각시대라서 그런지 사람의 5감(五感)-시(視)·청(聽)·촉(觸)·미(味)·후(嗅)-중에서 냄새 향기와 관련된 후각에 관한 뉴스는 신문·텔레비전은 물론 모든 매체에서 가장 드물게 눈에 띈다. 사람들이 냄새에 대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음식과 맛을 다루는 기사에서도 냄새나 향에 관한 내용은 없고 맛에 관한 것만 다룬다. 길거리 식당에서 파는 음식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요리는

단을 갖추게 되자 차츰 후각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됐다. 사람이 개나 생쥐보다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그때문이다. 진화론의 아버지인 다윈도 냄새를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 철학자 니체나 플로이드는 비염을 앓았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헤겔이나 칸트는 향(香)이 지식의 보급보다는 향락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향의 역할을 경시했다. 엘리트들은 냄새는 너무 동물적인 것을 연상시킨다며 점잖은 화제에서 말하는 것조차 기피했다.

### 인도 등에서 종교의식에 사용

향료는 기원전 1천여년 전부터 이집트나 인도, 중국 등에서 병을 치료하거나 종교적 의식에 주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다. 향료가 인간의 쾌락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기록상으로는 기원 초의 로마시대 때부터이다. 당시 로마의 원로 플린(Pline)은 그가 저술한 37권의 방대한 「자연사」에서 그 절정기에 이른 로마제국 귀족들이 향료를 생활을 즐기는 향락용으로 사용했음을 적고 있다. 지금까지 천연 향료만을 사용하던 유럽에서는 14세기 에틸 알코올이 발명되면서 합성향수가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했다. 향수는 유럽 상류사회의 신분과 사용 약세사리가 됐다. 그러나 향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그동안 저조했던 향료 향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금년 8월 4일자 프랑스의 르 몽드지는 향수 전문잡지 「Perfumer & Flavorist」를 인용해서 1999년 한해에 전세계 향수 매상고는 미화로 1백4억달러에 달하며 유럽에서

만 27억달러가 팔렸다고 보도했다. 향수는 원로 값보다는 향료 배합과 향수 병 디자인으로 원가의 수십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는 수지맞는 사업이니 프랑스, 미국 등 이른바 선진국 화장품 제조업체와 화학자들이 그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반응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국립과학연구원(CNRS) 산하에 구성된 몇개의 향 연구팀들이 이 일을 맡고 있다. 한국에도 신갈 인터체인지 부근에 자리잡은 태평양기술연구원의 향료연구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20~30여명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 프랑스는 우리보다는 앞서 있겠지만 그 곳은 그 곳대로 연구인원이 적다고 볼

평하는 모양이다. 각국이 이제야 향수 향료 개발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향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벌써 1년 전 일지만 로스앤젤리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중년 노인들의 몸에서 풍기는 불쾌한 냄새를 없애주는 '특효약'을 개발

하고 있다. 일본서는 중년 노인들의 체취가 젊은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중년 노인의 체취를 막아주는 의복을 전문으로 만드는 '군제'라는 기업까지 등장했다.

### 일본선 노인체취 제거제로

군제회사가 16세에서 25세 사이의 여성 2백78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92%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대답했고 65%는 그들 상사의 체취가 '아주 역겹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일본 제일의 화장품 회사인 시세이도는 향료 전문가인 나카무라 쇼지의 자문에 따라 노인 체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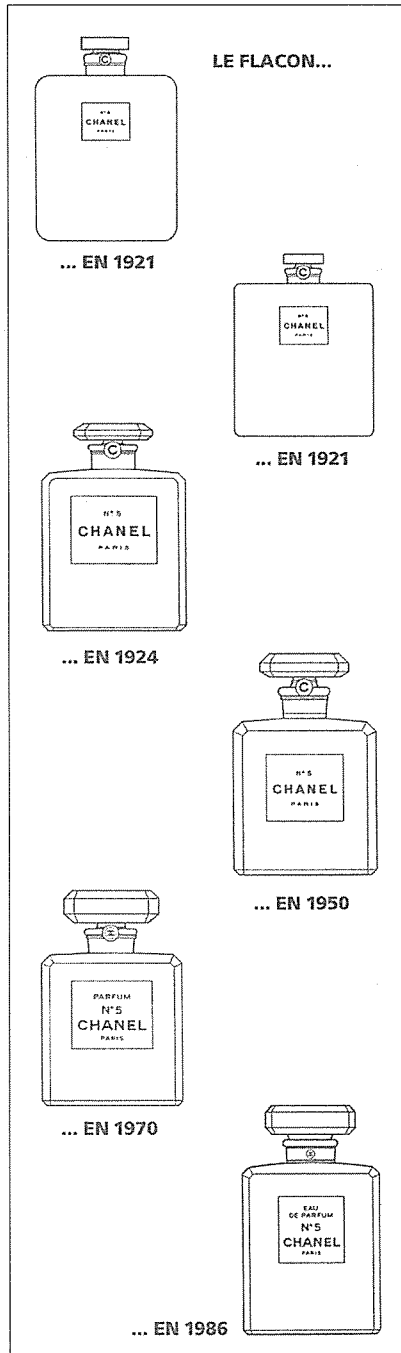
‘세기의 미녀’ 마릴린 먼로는 향수 샤넬No5를 몸에 뿌리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다는 말이 있었다. 그녀가 샤넬No5를 잠잘 때만 맡았겠는가?



'해결'해 줄 향수를 곧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백만분의 코' 라는 별명을 가진 나카무라씨는 무려 2천가지의 냄새를 분별할 수 있는 비상한 후각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태평양연구원의 조향사(調香師)로 있는 송명철씨에 의하면 향(香) 감별사인 조향사가 되려면 1천5백여종에 이르는 천연향 가운데서 적어도 2~3백종, 3천~6천여종에 이르는 합성향 중에서 5백여종을 감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나카무라씨는 무려 2천종의 향을 감별할 수 있다니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저자에 따라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냄새의 수를 40만에서 10만까지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발표된 프랑스 화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사람은 1만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나카무라씨의 후각은 초인적이다.

### 동물세계에선 '섹스어필'

체취가 동물 사이에서는 이성을 끄는 '섹스 어필'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람도 그럴까 하는 의문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었다. 미국 화학자들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10수년 전부터 연구를 추진해 온 끝에 99년 체취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여성을 두그룹으로 나누어 한그룹의 여성들에게는 여성의 겨드랑이에서 체취한 땀을 접시에 받아 그 냄새를 맡게 하고 나머지 그룹에게는 이같은 실험을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땀 냄새를 맡은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배란시기가 더 빨라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냄새가 여성의 행동도 바



75년간 샤넬No5는 수세대의 여성들을 매혹시켰다. 향수성분도 바꾸지 않았고 향수병도 수수해 보이지만 전쟁도 패전의 번덕도 '세기의 향수' 명성을 훼손할 수 없었다.

꿔 놓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다른 동물에 비하면 진화가 더디거나 퇴화해 간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의 후각이 아

직도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후각신경은 24시간 결합이 생긴 세포를 교체·재생하는 놀라운 적응력을 갖고 있다. 후각은 연구가 계속되면서 그 엄청난 기능에 비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신비에 쌓여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올해 첫해를 맞은 21세기는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풍요가 계속되리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사람은 생활에서도 양보다는 질적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식생활에서도 맛과 향을 더 가리고 개발하고 즐기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세계적으로 냄새와 향에 관한 연구가 다시 열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냄새 연구에서 많이 뒤져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의 냄새 타성 때문이다. 마치 생선장수가 비린내를 못 느끼듯이 같은 냄새를 오래 맡게 되면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한다. 이것을 후각의 선택적 과로 현상이라고 한다. 후각은 쉽게 둔해지는 습성이 있다. 같은 냄새를 계속 맡고 있으면 매초 2.5%씩 후각이 둔해져 1분이 지나면 70%가 기능이 둔해진다. 우리가 부패를 규탄하면서도 부패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 부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둔해지고 나중에는 자신도 그 부패의 소용돌이 속에 자연스럽게 휩쓸리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 우리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향을 개발해서 경제적으로 국제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도 한국 사람의 후각을 잠깨우고 그동안 무디어진 후각을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해진 때가 온 것 같다. ㉞